

※ 아산재단은 지난 2월 1,2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중 'MIU자녀장학생'과 '다솜장학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정소희 · 강민석 장학생을 만났다.

# “공익과 공정 중시하는 법조인 되어 기여하겠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스튜디오



정소희 장학생은 “아산재단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소희(23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4) 학생은 아산재단의 ‘MIU 자녀장학생’이다. MIU(Men In Uniform)자녀장학생이란 군인 · 경찰 · 소방 ·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독특한 장학제도다. 아산재단은 2020년

에 230명의 대학생을 MIU자녀장학생으로 선정, 학기마다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소희 학생의 아버지(정병지 · 56)는 경찰관(분당경찰서 경위)이다. 안정된 직업이지만 월급이 많진 않다. 그녀는 자신과 오빠(송균 · 25 · 동국대 경영학과3)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부담을 덜고자 공부에 매진했다. 4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이 평균 4.13(만점은 4.5)일 정도로 성적이 좋아서 학기마다 국가나 학교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했다. 또 과외를 하거나 도서관 ·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올해 처음 받은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그녀의 알바 부담을 줄여주었다.

학업 성적에서 보듯 그녀는 집중력이 무척 강하다. 유치원 생일 때 동네 마트에서 수컷 붉은귀거북 한 마리를 샀는데, ‘복거’로 이름 붙인 이 거북이를 20년째 기르고 있다. 콧물이 자주 나오고, 활동량이 주는 등 노화 증상을 보이지만 그녀를 보면 다가오는 등 반려동물의 특성은 여전히 잃지 않았다. 이 복거를 돌보면서 그녀는 동물보호법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녀의 꿈은 법조인이다. 2015년 분당중앙고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계산에 서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재수 끝에 연세대 정외과에 들어왔다. 처음엔 행정고시를 준비해 행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했으나 3학년 2학기 때 전공인 국제법 수업을 들으며 법률에 매료돼 법관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능’이랄 수 있는 이 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질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입학자격시험이다.

“일단 이 시험을 통과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에는 매년 100명 정도를 선발하는 재판연구원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재판연구원을 선택한 것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면서 재판 경험을 쌓기 위해서예요. 재판연구원으로 법률 전문가 경력을 쌓은 뒤에는 판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원이 되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법률가로서의 내공을 갖추기 위해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으며,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교내의 아카펠라 동아리인 ‘야안’에서 활동 중이다. 그림 솜씨도 뛰어난 편이다.

# “나와 같은 장애학생들의 개성 살리는 교사 되겠다”

강민석(20·경인교대 초등교육과2) 장학생은 아산재단의 ‘다숨장학생’이다. 다숨장학생은 신체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장학생으로, 아산재단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2020년 아산재단의 다숨장학생은 모두 41명이다.

옆의 사진에서 보이듯 목발은 강민석 학생의 신체 일부다. 유전적인 경직성 하지마비로 지체장애2급인 그는 여섯 살 무렵부터 목발을 사용했다. 그보다 앞서 아산장학금을 받은 누나(수진·23·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졸업)도, 아버지(강대생·56)도 같은 장애를 지녔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어머니(유은자·54)는 지체장애3급이다. 유전성 장애지만,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아버지가 그와 누나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이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해했다.

또래들이 쉽게 하는 일을 못 할 때 잠시 좌절하기도 했으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들로 구성된 ‘희망의 소리’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밝은 쪽으로 변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감도 붙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익혔고, 지난해 경인교대에 입학해서는 교내의 작곡 동아리인 ‘텔리카토’에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작년 4월 장애인의 날을 잊지 못한다. 서울 월드컵로에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10km 마라톤대회가 열렸는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인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목발을 짚고 2시간10분에 걸쳐 10km를 완주했다. 먼저 골인한 참가자들과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승점을 통과하던 순간의 감동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힘이 돼줄 것이다. 여세를 몰아 그해 11월, 터키에서 열린 15km 마라톤대회에 도전했으나 5km 지점에서 목발이 부러지는 바람



강민석 장학생은 “아산재단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기숙사비 등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고마워했다.

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목발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면 배려해줘야 한다는 주위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런 눈길은 그를 위축시킨다. 서울 재동초등학교 6학년일 때의 담임 선생님은 그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해준 첫 번째 어른이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신선해서 모든 아이를 능력껏 대우해주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었고, 소망대로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초등교육과 중에서도 특수통합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요.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학생들의 개성을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합니다.” 🐾